



# 글로벌광통신(주)

www.glights.com

- 대표이사 : 박인철 ● 설립년도 : 2001년 3월 3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9-11
- 주생산품 : 광점퍼코드, 옥내용 광케이블, FTTH 광케이블
- 전화 : 062-973-6114 ● 팩스 : 062-973-6116



## 광케이블의 독보적 기술력, 글로벌광통신(주)



박인철 대표이사

글로벌광통신(주)(www.glights.com 대표 박인철) 광케이블전문 제조업체로서, 2001년 설립이후 조명용 플라스틱 광섬유(POF), 통신용 광섬유케이블, 광섬유 센서 시스템, 옥외경관조명 제품 등 광 응용 제품을 개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 22일 광주광역시 대촌동에 조성된 광산업단지(LED 밸리) 내로 이전 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다. 설립 첫해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ISO9001과 ISO4001 인증획득과 UL910 인증 획득, UL 1651등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축적으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냈다. 또한 2007국제광산업전시회 신기술대상 산업자원부장관을 수상하였으며, 2007광주

MBC희망대상 기업경영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주 제품으로는 코드류 광케이블(Cord optical cables:T/B, Simplex, Duplex and Zip) 과 다심형 광케이블(Distribution & Break out cable)을 생산하고 있으며, 덕내 광 가입자망(FTTH)시장을 겨냥해 드라이 코어 케이블(Dry Core Cable), 리본형(Ribbon) 광케이블을 개발하였다. 2001년 설립 이후 특수 케이블 분야를 개척하며 군사용 광케이블, 선박용과 센서용 광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광통신은 제조 설비를 증설해 광케이블 생산용량을 대폭 늘렸으며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하여 FTTH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광케이블 전문제조업체인 글로벌광통신(주)은 2001년 설립 이후 특수 케이블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매년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인철 대표는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대로 매출이 100억원에 이르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철 대표의 계획은 광주지역 광산업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지역 광산업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 50억원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으로 이를 타개할 선도기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 광가입자망 (FTTH)의 미래의 주역

특히 경영철학으로는 고객을 신뢰하게 만드는 책임감, 그리고 인간 존중으로 부터 비롯한 창의성, 마지막으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협동심이었다. 글로벌광통신(주)이 생산하는 광케이블은 근거리통신망(LAN) 등 데이터 통신과 음성통신, 동영상 전송, 케이블TV 송·수신망, 군사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력제품인 드라이 코어 케이블은 대내 광가입자망(FTTH)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제품으로 인입용 광케이블의 양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 제품은 광섬유를 보호하는 젤리 층을 없앤 '드라이 타입'으로 기존 튜브형 광케이블의 단점인 젤리의 누출로 인한 오염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케이블보다 굵기가 가늘어 각 아파트 단자함에서 가정까지 연결하는 광케이블로 적합하며 작업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코드류 광케이블과 다심형 광케이블도 개발, 일본·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 광섬유를 이용한 화재감지 시스템(모델명 TMFS-150)도 개발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전력케이블, 변·발전설비, 통신선로, 석유, 화학 플랜트 온도 및 화재 감지용, 교량 및 건축물 안전진단용 등으로 이용 가능해 미래형 화재 감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광섬유를 이용한 화재감지 시스템(모델명 TMFS-150)도 개발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전력케이블, 변·발전설비, 통신선로, 석유, 화학 플랜트 온도 및 화재 감지용, 교량 및 건축물 안전진단용 등으로 이용 가능해 미래형 화재 감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광통신(주)의 주요생산품으로는 온도감지용 광섬유시스템과 침입자 감지 광섬유시스템 제작개발을 하고 있다. 여러 보안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이 장비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개발이 어려워 현재는 국내에 제작사가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광통신은 대당 2~3억에 이르는 이 제품을 국산화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일감이 없어 고민하는 업체가 많은 반면에 이 회사는 초고속통신망과 광가입자망(FTTH)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물량이 늘고 있다. 하루 24시간을 가동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한다. 글로벌광통신(주)은 머큐리, 삼성, 화성전선, 코스모링크 등 국내외 50여개 업체에 옥내용 점퍼코드와 옥외용 광케이블을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옥내용 점퍼코드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올해는 35억원을 투자해 500평 규모 공장을 5월까지 1800평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6월말 공장을 이전하여 전 설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 광가입자망 (FTTH)의 미래의 주역 Dry Core Cable 개발


특히 글로벌광통신(주)은 직원교육을 통한 직원의 업무신장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직원들의 광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할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해 회사 분위기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박인철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불량률을 없앨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불량률이 발생하거나 제품향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즉각 연구원, 생산담당, 품질관리 직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 모든 게 교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결과다. 광산업 성장 요인 및 전망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초고속 인터넷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이 광주 광통신 부품업체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폰 부품시장과 반도체 광원(LED) 분야의 수출과 내수 시장 증가도 성장 요인으로 꼽고 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내광가입자망(FTTH)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광주 광산업도 향후 2~3년간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뛰어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컴퓨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가입자가 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FTTH와 같은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광통신(주)은 이처럼 광산업이 주목을 끄는데 발맞추어 끊임 없이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혁신적인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광통신의 서비스와 품질은 이미 산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박인철 사장은 "옥내용 광케이블 외에 플라스틱 광섬유 케이블 등 특수 케이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LED 경관조명과 광섬유 응용 시스템 개발 등 제품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 광산업계의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림1 Dry Core Cable



▲그림2 Fig-8 type drop Cable



▲그림3 Hybrid Cable



▲그림4 Distribution Cable



▲그림5 Breakout Cable



▲그림6 Duplex Cable



▲그림7 Military Tactical Cable



▲그림8 Simplex Cable